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01	11. 08	11. 15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이수현 집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이수현 집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습1~3장, 학1~2장, 습1~14장, 말1~4장, 약1~5장)
- 창립 37주년-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10월 생일-박재기 집사, 이노을 자매(19일)
- 종교개혁일-31일(토)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날입니다.
-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기를 권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67장 다같이
 기 도 Gebet 유미경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출 20 : 3 (구p112) 유미경 집사
 설 교 Predigt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70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거대한 폭풍이 다가올 때

인간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웬만한 규모의 폭풍이라면 중요한 물건들도 챙겨 놓고 사람들도 대피시키는 등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쓸모 없는 엄청난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제 얼마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기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으며, 주고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러면 암이 나을까요?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따랐고, 2주 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노라 하면서 움켜쥐던 것을 놓고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실천하는 것만이 위기의 순간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판과 은혜 / 김서택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의 맨 마지막은 우리의 종말에 대한 생각이어야 한다. - Thomas Adams -**